전법 일기

## 김 보살이 가져온 순례 가방엔 아이들 줄 생필품들 가득했다

수년 전, 조계사 불교대학 동문회에서 미얀마로 성지순례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자는 조계사 불교대학 출신이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함께 봉사해온 김 보살님의 간곡한 권유로 순례길에 동참할 수 있었다.

출발 당일, 공항에서 마주한 보살님은 온몸으로 짐을 감싸 안고 계셨다. 가장 큰 가방부터 중형 가방, 기내용 가방, 배낭, 핸드백까지. 세 개의 커다란 가방은 항공편으로 부치고, 손에는 배낭과 가방만 들고 비행기에 올랐다. 그 모습이 어쩐지 단단해 보였다.

미얀마 호텔에 도착했을 때 필자는 김 보살님과 같은 방을 배정받았다. 방 앞에는 이미 세 개의 가방이 도착해 있었고, 함께 방으로 옮기는데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이사라도 오신 건가' 하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가방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다름 아닌 아이들에게 줄 옷가지, 간식, 사탕, 문구류, 생필품들이었다. 차곡차곡 정성스레 싸인 그 물건들 하나하나가, 마치 보살님의 마음 조각 같았다.

"이건 모두 이곳 아이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보살님의 말에 필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보살님은 여든 셋. 그 연세에도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종로 조계사까지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봉사를 다니셨고, 경복궁과 창덕궁에서는 문화유산 해설 봉사도 이어가고 계셨다.

한국전쟁 당시 공군부대에서 통역사로 활약한 공로로 훈장을 수훈했고, 매달 받는 보훈비 50만 원은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사업 중인 사위가 보내주는 용돈마저 아껴 모아 〈약사여래경〉을 1000권씩 인쇄해 보시하신다는 이야기는 감동이었다.

순례 마지막 날, 가져온 옷과 생필품, 간식들은 모두 나누어 주고 여행용 가방마저 전부 보시한 보살님은 손가방 하나와 텅 빈 배낭만을 들고 문 앞에 섰다. 침대 위에는 깨끗한 지폐 몇 장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방을 향해 합장을 한 채 반배를 세 번 올리셨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숙연해졌다. 마치 오래 머문 집을 떠나는 듯한 작별. 그 방을 향한 인사가 수행자의 진심처럼 느껴졌다. 신·구·의 삼업이 정화되는 순간을 곁에서 마주한 나는, 깊은 감동을 품고 조용히 따라 합장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다음 캄보디아 순례에 나설 때, 필자도 남대문 시장에서 여행가방 가득 생필품을 사 들고 갔다. 현지 사찰에 대중공양을 올리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보살님, 저도 따라 하고 있어요."

사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큰 스승을 만난다. 말보다는 삶으로 가르쳐 주는 분들.

나에겐 김 보살님이 그러셨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마음 속 불심(佛心)을 다시 가다듬고 '늘 나누며 행복하리라' 다짐한다.



조정희
국제포교사, 명상 전문 트레이너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⑮ 여래의 오분법신

# 복밭 되고자 한다면 법신을 갖추라

오온(五蘊)은 모두 공하다. 〈반야심경〉에서 선언하듯이 오온개공의 고백으로 도달하는 수행의 지점은 어디인가? 이는 삼법인의 하나인 제법무아의 교리로 연결된다.

오온과 무아론은 인도전통의 오장설과 아트만론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그 증거는 3세기에 한역된 〈수행도지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인도의 수행전통을 반영하며 수행의 경지를 현상적으로 분별하는 설명으로 가득한 〈분별상품(分別相品)〉에는 오온으로 구성된 몸에 대한 견해를 다음처럼 명시한다.

**몸에 대한 모든 법을 분명히 깨달아 안다면**
**즉시 그 마음이 돌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니**
**마음이 날뛰며 나아가는 바를 방편으로 통제하여 멈추어야 한다.**
**(假使曉了身諸法 則知其意所歸趣 方便制止心所趣: T15, 191c4-5)**

불전은 심법을 중시하며, 색법인 몸은 부정한 것의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즉 더럽고 허망한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임에 비하여, 〈분별상품〉은 몸에 대한 모든 법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 마음의 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수행이 원만해졌을 때 이 오온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마음의 법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수는 없는가? 4세기경 한역된 〈보살영락경〉에는 약간의 암시가 있다.

**여래의 5근(根)은 법신의 계, 정, 혜, 해탈, 해탈지견의 몸을 성취한다. 이것이 여래의 5분법신(分法身)이다. 여래의 신묘한 지혜는 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如來五根成就 法身 戒身 定身 慧身 解脫身 解脫知見身 是謂如來五分法身 如來神智 不毁法身: T16, 23a13-16)**

전통적 오분법신은 깨달음의 자리에 도달한 존재가 구비한 공덕으로, △계온(戒蘊) △정온(定蘊) △혜온(慧蘊) △해탈온(解脫蘊) △해탈지견온(解脫知見蘊)을 말한다. 그런데 〈보살영락경〉의 '식계품'(識界品)은 계신(戒身)으로부터 시작하여 해탈지견신(解脫知見身)의 오분법신으로 설명한 것이다. 즉 '지혜와 선정의 5분법신을 식(識)으로 분별'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계(戒)의 향으로 몸을, 정(定)의 향으로 뜻을, 혜(慧)의 향으로 혼란함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해탈의 지혜(解慧)로 뒤바뀐 소견을 통제하고 해탈지견인 도지(度知)로 무명을 멈추게 한다.(戒香攝身, 定香攝意, 慧香攝亂, 解慧攝倒見, 度知攝無明: T16, 19a11-12)

〈보살영락경〉의 이 설명은 〈분별상품〉에 대한 보충설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5세기경 한역된 〈대반열반경〉은 오온으로부터 출발한 신체에 대한 검토를 아라한과와 연결하여 설명한다.

**아라한의 과위는 곧 무학(無學)의 오분법신인 계정혜와 해탈과 해탈지견이다. 이 다섯 가지로 인하여 저 언덕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阿羅漢果者 卽是無學 五分法身 戒定慧解脫解脫知見 因是五分 得到彼岸: T12, 827b20-22)**

오온개공에서 출발한 법신론의 특이한 흐름은 일체의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이라는 불교의 큰 흐름으로 합류한다. 누구든 세상의 복밭(福田)이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신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오분법신의 수행력을 점검하는 테크닉이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 지진 피해 미얀마에 무한한 자비심을

4년째 이어지는 군부 쿠데타와 오랜 내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미얀마에 3월 28일 7.7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했다. 미얀마 군부에 따르면 4월 10일 현재 3600여명이 숨졌다. 40도가 훌쩍 넘는 기온과 강우 등 악천후가 겹치며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늦다는 점이다. 중국·러시아 등이 구조팀을 파견했지만, 미국 등 서구의 공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얀마 지원을 위해 현지에 파견한 미국 국제개발처 직원들을 4월 5일 해고했다. 미국의 지원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200만달러(약 29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고 추가 물품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불교계도 애도와 함께 긴급 구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국제협력NGO 더프라미스와 함께 긴급 구호단을 구성하고 4월 8일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을 포함한 3명의 구호단을 파견했다. 이들은 도착 즉시 만달레이 지역에 1만 5000달러, 인레 지역에 5000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과 미얀마에 지부를 두고 있는 로터스월드와 지구촌공생회도 지진 피해 긴급 구호·복구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사십이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도와 함께 기뻐한다면 그 얻는 복이 매우 크다"면서 "한 개의 횃불이 있는데 수천 명의 사람이 각기 불을 붙여 가서 음식을 익혀 먹거나 어둠을 밝힐지라도 원래의 한 개 횃불은 변함이 없다. 복덕도 이와 같다"고 하셨다.

12·3 비상계엄사태에 따른 대통령 파면과 영남 산불 등 국가적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큰 피해를 입은 이웃나라를 돕는 것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다. 미얀마 지진 피해 성금 모금에 불자들이 자비심을 내 조금만 더 정성을 보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부처님 말씀대로 복덕을 쌓는 기회이기도 하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 세시간 염불도 거뜬 !

**하던 내 체력! 이제는 30분 염불에도 무리가 오니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그러나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마이크와 2m 멀리서 세시간 힘빠진 작은 염불 소리에도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휘감는 특수염불마이크를 지금 소개합니다.

**현장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마이크 : 이태리 성악전문 수입품(Schoeps Martin)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frac{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